

남원시, 지방채 제로화 달성

채무액 81억5000만원 전액 조기상환... 27억5000만 이자절감 효과

남원시는 민선 출범 22년만에 지방채 없는 ZERO도시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민선1기(1995년) 출범당시 648억원에 달했지만 수자원공사에 일부 이전하고 2014년말 243억원, 2016년말 81.5억원이 남아 있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고, 지난달 31일 조기 상환해 채무없는 도시를 달성했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7조 9000억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북지역 총 채무는 1조3,850억원이며 남원시의 경우는 192억원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5년도말 기준 1,257조, 가구당 부채는 작년 3월말 기준 6,655만원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가구당 부채의 심각성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번 남원시의 지방채 제로 달성은 지방재정 건전성 운영에 모범을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남원시는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지방채무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남원시와 온새미로(예산동아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채 ZERO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순세계입여금으로 지방채를 전액 조기상환했다.

채무역신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28

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전북도 지역개발금으로 발행한 4%의 고이율 지방채 복남원IC 진입도로, 신역사대로개설, 순환골목재육관건립 등 총 81억5천만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의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했다.

2016년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안 제3농공단지조성과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등 110여원을 조기상환했다.

또한, 지난달 말 채무잔액 81억 5000만원을 전액 조기상환해 총 27억 50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 투자해 시민을 위해 재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여행으로 토탈관광 제대로 이해하자'

순창군, 30일까지 전 직원 전북투어패스 체험... 전북도와 상생발전 기대

순창군이 도정 핵심사업인 전북투어패스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투어패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군 산하 전 직원이 투어패스 체험에 나섰다

이번 투어패스 체험은 이달 30일까지 부서별로 투어패스 카드를 직접 구입하고 관내 자유이용시설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투어패스 운영 현황과 운영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편리성을 느끼고 전북도 타 시군 여행 시 이용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첫 시행 부서로 보건사업과 직원들의 투어패스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보건사업과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카드 구입부터 강찬산 방문,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체험,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영화관람, 특별할인가 땀진 식당에서 저녁식사, 할인 가맹점 특산품 구입 등 투어패스 한 장으로 지역의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식사와 특산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는 편리성을 경험했다.

체험에 나선 보건의료원 윤모(49,여)



순창군이 도정 핵심사업인 전북투어패스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 "자유이용시설에서 입장권을 발급할 필요 없이 카드로 태깅만 하고 입장하면 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했다"며 "오늘 체험으로 전북투어패스의 유용성을 알았으니 주변에 적극 홍보하고 전북 여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군은 하루에 1~2개 부서씩 6월 말까지 전 직원이 투어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들도 투어패스 체험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46곳의 가맹점 수를 올해까지 치유민박시설 등으로 확대해 최대 60개소로 확대해 투어패스의 성공 발전의 비전을 이해하고 순창군과 전북도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5월말 순창에서 전북투어패스 판매량은 2,171매로 집계됐다.

순창군의 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은 강찬산 군립공원, 순창 천재의공간영화산책,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며, 할인 혜택으로는 식당의 경우 대부분의 업소에서 최소 10%, 고추장민속마을의 장류제품은 10 ~ 20%, 속소는 주중 최대 30%까지 할인 가능하다.

군은 현재 46곳의 가맹점 수를 올해까지 치유민박시설 등으로 확대해 최대 60개소로 확대해 투어패스의 성공 발전의 비전을 이해하고 순창군과 전북도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신평우 임실부군수, 주민중심형 현장 행정 '팔 걷어'

신평우 임실부군수가 주민중심형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신 부군수는 평소 강조해온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지론을 앞세워 지난 달 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현장을 직접 돌리고, 세심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신 부군수는 일 자리 참출 등을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집행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체크했다.

이를 위해 신 부군수는 앞선 29일에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27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 쟁점 사항 및 대책 등에 관한 일괄보고를 받기도 했다.

신 부군수가 이번에 방문한 현장 사업장은 모두 10여곳으로, 심각했던 불가뭄 대비가 잘 이뤄졌는지, 본격적인 여름철을 두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먼저 신 부군수는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불철 가뭄에 대비해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 현장도 찾았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임실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신 부군수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점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주민중심형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손뼉 밀 가시를 빼내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122개 핵심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1월에 확정해 3월말과 5월말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점검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오수 시장 상인회장이 취임식

임실군 오수면 시장 상인회(회장 김용필)는 지난달 31일 정기총회와 신규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상인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심민 군수, 문영두 군의장, 이성재 의원, 이상덕 면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도 회계결산과 2017년도 현안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5대 감용회 회장이 임명하고 52대 신임 이팔용 회장이 취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1일 순창읍 전통시장 주차장 내 특설무대에서 300여명의 군민과 관광객 시장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황기순씨의 진행으로 예상을 통과한 군민 12명의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한재진, 임현정, 이선우, 강대종의 축하공연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식전행사로 순창군 음악협회의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진행돼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장명균 부군수는 "순창 전통시장은 품질 좋은 상품이 어느 곳 보다 싸게 살수 있는 곳이다"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지역민과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고 순창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통합건강검진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1일 세계금연의 날 및 제67회 구강보건 의 날을 맞아 '통합건강검진 캠페인'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했으며 흡연 폐해를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원은 공무원, 기전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생 등 20여명이 참여해 임실을 터미널 앞에서 민성철환, 금연, 구강건강, 건강생활실천 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그 이(齒)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를 슬로건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등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렸다.

운동, 영양, 절주홍보 및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지켜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생활 속 실천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법 시행

내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조성한 임야에 한하여 실제로 자이용현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 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적공부 불일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발농업직접지불금 수령 등 소유자 재산관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순창군,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공모 선정

순창군이 귀농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순창군과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함께 추진한다.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순창으로 귀농귀촌한 도시민들이 만든 단체로 지난해 지난해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여가구에 가정에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평생제작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이 참 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 063-653-5002 H.P :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